

장편소설에서 문학적이야기와 그 꾸밈에서 나서는 몇가지 문제

최 련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소설에는 반드시 일정한 문학적인 이야기가 있어야 한다.》(《김정일선집》 증보판 제16권 316페이지)

소설문학이 다른 문학형태들과 구별되는 중요한 특성은 이야기문학이라는데 있다. 이야기를 떠난 소설이란 생각할수 없다.

이야기를 떠나서는 소설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성격발전이 이루어질수 없고 그 어떤 문학적주제의 해명도 있을수 없다. 현실을 서사적인 방식으로 묘사하는 소설은 그 형태적인 특성으로부터 일정한 이야기를 필수적으로 요구한다.

이 글에서는 장편소설에서 문학적이야기와 그 꾸밈에서 나서는 몇가지 문제에 대하여 서술하려고 한다.

무엇보다먼저 장편소설에서의 문학적이야기에 대하여 보기로 한다.

문학적이야기는 방대한 이야기줄거리의 기본축을 이룬다고 말할수 있다.

소설창작에서는 문학적이야기를 탐구한 기초우에서 이야기줄거리를 흥미있게 엮기 위한 작업이 제기된다. 창작과정이나 소설을 읽은 후에도 주어진 소설의 이야기줄거리에 대하여 한마디로 대답할수 없는 경우들이 많다. 짧은 단편소설이라면 한두문장으로 줄거리를 요약하여 말할수 있지만 큰 형식의 소설들 특히 장편소설의 이야기줄거리에 대하여서는 어차피 장황하게 전개하여 이야기할수밖에 없을것이다. 그만큼 장편소설이 전개하는 이야기줄거리는 복잡하고 다면적이며 방대하다. 그러나 방대한 이야기줄거리에도 그것을 단 한두줄로 표현할수 있는 문학적이야기라는 뿌리가 있다.

소설의 문학적이야기는 주인공의 운명적인 인간문제의 제기와 그 해답과정이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독자들을 극적흥미속에 끌어들이는 이야기이다.

문학적이야기는 이야기줄거리의 기본축으로서 주인공을 비롯한 인물들의 성격발전과정을 중심으로 집약화한것이라고 말할수 있다.

단편소설은 주인공의 성격에서 질적변화가 일어나는 하나의 생활단면을 보여주는 극적인 이야기로서 새로운 성격이 비낀 생활이 집약화되어 그려진다. 그런것만큼 단편소설의 문학적이야기는 주인공의 새로운 성격이 집중적으로 표현되는 생활단면속에 체현된다.

중편소설은 주로 인물성격의 질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한순간이 아니라 비교적 전개된 성격발전과정을 어느 정도 폭넓게 보여주는 소설형태이다. 그러므로 중편소설의 문학적이야기는 어느 한 생활단면이 아니라 일정한 성격발전과정과 생활의 흐름을 체현한다.

장편소설은 생활용적이 가장 큰 소설형태로서 소설문학이 가지고있는 특성을 포괄적으로 구현한다. 장편소설은 단편, 중편소설과는 달리 생활반영의 폭과 규모에 있어서 제한

이 없다. 장편소설은 해당 역사적시대의 사회적본질을 밝혀낸다는 점에서는 중편소설과 구별된다. 물론 단편소설이나 중편소설도 해당 시대의 사회적본질을 반영한다. 그러나 장편소설에서와 같이 시대적인 폭과 깊이를 가지고 밝혀내지는 못한다.

장편소설에서는 해당 역사적시대와 사회계급적관계를 대표하는 각이한 계급과 계층의 인물들이 등장하며 그들의 운명발전과 생활로정을 통하여 그 시대의 본질적특성들이 폭넓게 반영된다. 장편소설의 소재로는 인간의 웅근 한생 혹은 몇대에 이르는 이야기가 될수도 있고 짧은 시간길이의 생활이 될수도 있다. 그러나 시대전반을 깊이있게 해부하는가, 시대의 모습이 전폭적으로 안겨오는가에 따라서 그 작품이 시대문학으로서의 장편소설의 체모를 갖추었는가 갖추지 못했는가가 결정된다.

장편소설의 이야기는 극적인 이야기로 되어야 한다. 모든 형태의 소설이 그러하지만 방대한 생활을 가진 장편소설의 이야기가 극성이 약하면 독자들에게 쉽사리 지루감을 줄 수 있다.

장편소설의 문학적이야기는 주인공의 운명의 변화발전과정을 포괄하는 극적인 이야기라고 말할수 있다.

장편소설의 이야기줄거리는 다른 형태의 소설들과는 달리 주인공을 비롯한 인물들의 성격발전의 력사이다. 그런것으로 하여 그 이야기줄거리의 기본축을 이루고있는 문학적이야기도 종당에는 인물들의 운명의 변화발전과정이 집약화된것으로 되는것이다.

이것은 장편소설의 문학적이야기가 단편이나 중편에는 비할수 없는, 주인공의 운명발전에서 관건적인 의의가 있으면서도 보다 중요하게는 시대의 특징을 체현하고있으며 시대의 본질적문제를 안고있는 극적인 이야기라는것을 의미한다.

장편소설 《열망》의 문학적이야기는 우리 조국이 가장 어려웠던 고난의 행군시기에 이리저리한 사람들이 사회주의강국건설의 열망을 안고 시련을 박차며 일떠서는 거세찬 시대의 대하속에 뛰어들었다는 이야기이다. 작품에서는 《조국이 가장 어려운 때 평범한 조선사람들의 가슴속에서 뜨겁게 분출한 열망은 무엇이며 매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운명적인 문제를 제기하고 비록 가슴아픈 시련과 혹심한 난관이 앞을 막아나서도 오직 자력자강의 억센 신념을 안고 기어이 온 세상이 보란듯이 이전보다 더 훌륭하고 더 살기 좋은 사회주의강국을 일떠세우려는 열망, 단순한 생산정상화가 아니라 세계적인 수준으로 치달아올라 조국의 존엄을 떨칠 시대적열망으로 심장을 끓이며 투쟁할 때 승리는 확정적이며 조국이 기억하는 인간으로 살게 된다는 해답을 예술적으로 보여주고있다.

주인공 전영범은 기사장 강형모나 주강직장장 윤병암, 부총국장 양리찬 등의 인물들과 인생관적인 차이로 하여 충돌하며 그 상승, 해결의 과정을 걷게 된다.

작품에서는 련합기업소의 3위일체를 보장하는 문제가 중요하게 취급되고 또 자체전국생산기지를 꾸리거나 선압기를 만드는 아름다운 생산실무적과정이 주류로 흘러가는것 같지만 그 밑바탕에는 주인공을 비롯한 인물들의 운명의 변화발전, 전환과정에 대한 인간학적이야기가 깔려있으며 궁극에 가서는 조국이 가장 어려웠던 고난의 행군시기 내 조국을 빛내일 불타는 열망을 안고산 사람들과 동면하며 그럭저럭 살려는 사람들과의 인생관에서의 극적대조를 기본축으로 하고있다.

이처럼 문학적이야기는 이야기를 탐구하는데서 선차적인 문제로 나선다.

다음으로 장편소설에서 문학적이야기의 꾸밈에 대하여 보기로 한다.

장편소설의 문학적이야기가 주인공의 성격발전, 운명발전을 축으로 하여 조직되는 이야기인것으로 하여 문학적이야기를 조직함에 있어서 주인공의 성격적기초가 미약한가, 확고한가 하는것은 결정적영향을 미친다.

장편소설의 문학적이야기를 꾸미는데서 중요한것은 우선 성장발전하는 주인공을 설정한 경우 성격발전과정을 진실하게 보여주는것이다.

이 경우 문학적이야기는 주인공의 내면세계의 심각한 변화로부터 정상적인 생활의 변화가 오게 되며 그후 생활을 통한 끊임없는 성격적발전을 거쳐 결국 시대적전형으로 성장하는것으로 꾸미게 된다.

주인공의 정상적인 생활의 흐름속에서 발생발전하여 축적된 감정으로부터 내면세계의 변화, 감정의 변화 나아가서 생활의 변화가 있게 된다.

주인공의 내면세계에서 왜 변화가 있게 되였는가, 그의 정상적인 생활의 흐름이 왜 깨어지게 되였는가 하는 문제점이 소설에서는 구체적이며 운명적인 인간문제로 제기되며 그것이 일반화되어 주제로 된다.

여기서 중요한것은 단순한 실무적문제의 제기, 실무적과정의 탈선 그자체는 감정 및 생활선에서의 파동을 의미하지 않으며 적어도 등장인물들의 고심과 변민의 세계를 환기시킬 수 있는 계기의 설정이 문학적이야기를 열게 하는 방도로 된다는것이다.

장편소설 《피바다》에서의 초기 어머니의 생활은 비록 수난과 가난속에서도 비교적 조용히 흘러간다. 그러나 왜놈들의 《토벌》로 하늘같이 믿어오던 남편을 잃고 온 마을이 불바다로 되어 정처없이 살길을 찾아 떠나지 않으면 안된다. 세 아이를 데리고 여기저기로 류랑하는 과정에 어머니는 일제의 총칼밑에서 죽지 못해 살아가는 많은 조선사람들의 불쌍한 처지를 목격하게 된다.

그러나 어머니는 이 모든것이 어째서 초래되는것인지, 그렇듯 지겹고 힘겨우며 지어는 죽을 마음도 먹게 되는 생활의 고통을 왜 겪어야 하는지 아직은 깨닫지 못한다. 다만 눈물과 한숨속에서 몸부림칠뿐이다. 그러면서도 마음속에는 사랑하는 남편을 빼앗아가고 죄 없는 사람들을 마구 죽이며 못살게 하는 일제에 대한 증오심이 서서히 자란다.

작품의 문학적이야기는 바로 순박하고 어질기만 했던 어머니가 싸움의 길에 나설것을 결심하게 되는 마음의 계기에서부터 비로소 시작된다. 이전의 어머니의 가정생활, 남편의 투쟁과 최후, 일제의 《토벌》, 정처없이 떠다니는 류랑의 길 등은 다 어머니의 내면세계에서의 변화를 바탕지어주는 생활로 될뿐이다.

소설에서는 어머니가 싸움의 길로 용약 나서게 된 계기를 유격대공작원 조동춘과의 대면에서 주고있다. 그때 어머니는 드디어 자기 마음을 정확히 들여다보게 된다.

《그러나 지금 어머니의 기구하면서도 단조롭기 그지없는 생활에 불쑥 나타난 유격대공작원 조동춘의 출현은 폐쇄된 어머니의 생활의식을 가지고도 전혀 돌발적인 일로 느껴지지 않았다. 오히려 오래전부터 기다리고있던 일이 이제사 닥친듯 한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안도감 비슷한것이 떠오르기도 하였다. 응당 생소하게 느껴져야 할 공작원의 말조차 전혀 뜻밖으로 들리지 않았다.

...

이 세상에 사는 어머니의 기원은 부귀영화를 누리자는것도 아니였고 오래오래 살자는것도 아니였다. 자나깨나 잊을수 없는것은 남편을 빼앗긴 원한과 자식들에 대한 사랑이였

다. 오직 두가지밖에 없는 그러면서도 극단으로 모순된 사랑과 증오의 두 감정을 안고 어머니는 묵묵히 무엇인가를 애타게 기다리며 살아가고있었다. 무엇을 기다리는지, 지어 자기가 무엇을 기다리고있다는것조차 느끼지 못하였지만 어머니는 항상 자기 생활에 무슨 변화가 오리라는것을 막연하게 예감하였고 그것을 은근한 두려움속에서 기다리고있었다.》

이렇게 되어 왜놈들을 끝없이 미워하면서도 자기의 힘을 전혀 알지 못해 혁명의 길에 들어서지 못했던 순박하기 그지없던 어머니는 드디어 지금까지의 생활흐름에서 벗어나 오게 되는것이다.

바로 여기서 그리도 순박하고 평범하던 어머니가 어찌하여 싸움의 길로 나서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는가 하는 운명적인 인간문제가 제시되는것이다.

어머니는 혁명조직의 지도방조와 자기의 투쟁을 통하여 혁명적세계관으로 무장하기 시작하면서 비로소 남편의 원수를 갚고 자식들을 지키며 진정한 삶을 찾는 길은 오직 일제와의 싸움의 길, 투쟁의 길에 있다는것을 깨닫게 되며 성시해방전투에서는 투쟁의 맨 앞장에 설뿐아니라 군중앞에서 심장을 울리는 선동까지 하는 견결한 혁명가로 성장한다.

이처럼 모든 고생을 숙명처럼 받아들이며 살던 평범한 어머니가 견결하고 강의한 혁명가로 성장하는 문학적이야기는 어머니의 내면세계의 심각한 변화과정을 축으로 조직되었다.

장편소설의 문학적이야기를 꾸미는데서 중요한것은 또한 사상정신적면에서 어느 정도 준비된 주인공을 설정하는 경우 기본상대인물의 운명변화과정을 잘 그리는것이다.

이 경우에는 주인공의 생활선상에서 제기된 운명적인 인간문제가 주로 기본상대인물의 운명변화과정을 통하여 심화되며 그 해답은 주인공의 성격발현과정을 통하여 이루어지도록 문학적이야기를 조직하는것이 합리적이다.

준비된 주인공을 설정하는 경우 이야기의 전진과정은 그의 성격발현과정으로 된다. 그 성격발현과정은 주인공과 기본인물관계에 놓인 상대인물과의 관계발전속에서 이루어진다. 여기서 주인공이 자기의 성격적면모를 원만히 드러내자면 그앞에 제기되는 저항이 상대적으로 커야 한다. 이 외적저항은 그 어떤 생산문제로 인한 저항이 아니라 주인공의 기본상대인물과의 관계속에서 부닥치게 되는 저항이다.

준비된 주인공과의 관계속에서 기본상대인물은 자기의 운명변화과정을 통하여 주인공이 제기한 운명적인 인간문제의 심화과정을 보여주게 된다. 동시에 상대인물의 운명변화과정을 통하여 주인공은 자기가 제기한 인간문제의 심화과정을 체험하게 된다. 이것이 문학적이야기를 조직하는데서 첫 공정으로 된다.

장편소설 《먼길》의 주인공 최중열은 비교적 사상정신적준비가 좋은 주인공이다.

최중열은 사랑하던 애인이 자기에게 결별을 선언하였을 때 비록 아픔은 느낄지언정 결코 타락하지는 않는다. 그는 함께 손잡고 연구를 하리라 생각했던 양빈이 떠나갔다는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도 피로운 마음을 누르며 혼자서라도 기어이 연구를 완성할 결심을 한다.

연구사업에 도움을 주던 교수의 죽음, 석류산에서의 연구, 죽음을 각오해야 하는 호성팔에로의 탐사길, 자기의 고향집을 지나는 순간들도 역시 주인공의 의지를 더욱 굳게 해주는 계기로 작용한다. 다시말하여 그 모든 사건들은 과학탐구의 먼길을 끝까지 가려는 그의 의지를 더해줄뿐이다.

이처럼 사상정신적면에서 어느 정도 준비된 주인공을 설정한 작품에서 문학적이야기

는 주인공의 성격의 발현과정으로, 보다 적극적인 발전과정으로 된다.

주인공 최중열이 맞다드는 시련의 고비들마다에서 자기의 운명앞에 제기하는 문제, 어렵고 멀고 험난한 과학탐구의 길을 끝까지 걸어갈수 있는가 하는 문제는 최중열의 상대역인 양빈으로 하여 심화발전된다.

양빈은 연구과정에 심각한 내면세계의 변화를 체험한다.

이에 대하여서는 최중열이 양빈을 찾아갔을 때 하는 그의 쓰디쓴 고백속에서 울려나오고있다.

《고맙소. 최동무, 허지만 인젠 너무 늦었어. 난 변했단 말이요. 과학도, 탐구도, 명예도, 리상도 더는 나를 자극하지 못하오. 그동안 많이 울고 많이 생각한 후에 지금처럼 살기로 결심하였소. 나도 내 처도 종래와는 다른 자기 생리, 자기 론리, 자기 생활관을 가졌단 말이요. 우리의 그 새로운 생활관은 이렇소. <자기희생이 무엇때문에 필요한가? 남들이 즐거울 때 우리도 즐거워야 한다.···>》

양빈이가 체험하는 변화속에는 우리 시대 청년과학자들의 삶의 목적은 어떤것이 되어야 하는가, 과학탐구의 먼길을 끝까지 걸을수 있는 정신적원천은 무엇인가 하는 인간문제가 잠재되어있으며 그것은 주인공이 안고있는 운명적문제에 심각성을 더해주면서 심화발전된다.

이렇게 심화발전된 인간문제는 주인공의 성격발현과정을 통하여 해결된다.

시료채취중 절벽에서 떨어져 병원에서 겨우 의식을 차린 중열은 자신을 돌이켜본다.

여기서 보게 되는 주인공의 사상정신적핵은 조국이 필요로 하는 연구성과를 위해서는 청춘을 다 바치고 죽음까지도 기꺼이 맞이할 비장한 각오이다. 이것은 양빈의 운명이 제기하는 인간문제에 대한 해답이며 작가가 밝히려는 사상이다.

사상정신적면에서 어느 정도 준비된 주인공의 경우 문학적이야기의 꾸밈과정을 종합하면 한마디로 주인공과 기본상대인물간의 성격대조, 운명대조라고 말할수 있다.

결국 장편소설 《먼길》의 문학적이야기는 수재이며 개인적야심도 있던 사람이 포기한 탐구의 먼길을 그보다는 능력이 좀 부족하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끝까지 걸었다는것이다.

장편소설창작에서는 해당 주인공의 성격적기초에 맞게 문학적이야기를 조직하여 성격과 생활의 론리에 맞는 생동하고도 진실한 예술적형상을 창조하여야 한다.